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축복을 동역자들인 성가대원들에게 흘러가게 하자”는 안민 총장의 말씀으로 둘째 날이 열렸다.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감격이 더해진 천국의 잔치 한마당인 하루가 되었다. 최훈차 교수의 리허설 테크닉을 필두로 한 여섯 개의 오전 분반과 다섯 개의 오후 분반은 찬양의 여러 측면과 기술을 더욱 깊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로 각 교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 찼다. 여기에 다섯 개의 리딩세션은 새로운 성가를 배우려는 욕구를 넘어 함께 찬양을 하는 과정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넘치는 체험의 현장이 되었다. 참석자들 중 리딩세션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처음 알았다고 전하는 이들이 많았다.

여기에 초청연주는 둘째 날 저녁 또한 축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콜레기움 보칼레, 박신화콰이어, OS Singers, The Voice 챔버콰이어, 윤학원코랄로 이어진 저녁 음악회는 청중들을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하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성된 음악을 넘어 찬양만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동으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세미나 등록자 외에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을 구입하는 일반인들의 모습은 획기적세미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좀 힘들긴 하다.
 하루 종일 앉아있으려니까...
 처음 왔다... 기대도 많다...
 하하... 정말 좋다. 기대한 것보다.
 도움도 많고 즐길 수도 있다.
 다양한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전공자가 아닌데 갈급한 부분을 해결해 준다. 필요한 부분들을 단계에 맞추어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좋다.
 메시아 강의가 기대된다.
 잘 모르고 그저 대곡이란 생각만 했는데 오늘을 통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군산 성민교회 고한나)

자신을 대속 제물로 삼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살려내신 그 무게와 크기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자들만이 머리가신 그 분으로 인해 비로소 참된 동역이 가능해진다. (안민 교수 강의 중에서)